

5면에 이어

죽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Where did the unwillingness to die come from?

The heart that does not want to die is the action of blood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은 피의 작용

Therefore, this is the secret that people cannot die; this person has been crying out new teaching in Korea for six years. Since six years ago, this man has built the Victory Altar of YoungSaengGyo, and about 100,000 believers all over the country now believe. 그러고로 사람이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비결, 이러한 것을 이 사람이 6년 전서부터 한국 땅에서 이 사람이 외친 고로, 6년 전서부터 이 사람이 영생교 승리제단을 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10만 성도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이제 믿고 있는 것입니다.

Over the six years, not a single one among them died. The Bible says that its fruit recognizes a tree. This achievement of eternal life without death is proof that the God of eternal life is with this person. 이 10만 성도가 6년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바로 영생의 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Therefore, it is a wrong idea to take it for granted that people in this world die. Originally, humanity was an immortal being that could not die. The proof is in the hearts of the people living today worldwide. 그러고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원래 사람은 죽으려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뭐냐? 오늘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Everyone hates to die, the heart that hates to die even while dying; let's ask from where the mind came. The heart

that does not want to die is the action of blood. The action of that blood, where did it comes from, is from our ancestors. 누구든지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어가면서 죽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깨물어 보자 이겁니다. 죽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바로 피의 작용입니다. 그 피의 작용, 그 피는 어디서 왔느냐? 그 피는 조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Therefore, the blood of our ancestors, Adam and Eve, who lived in the immortal world from eternity to eternity. Because their blood flows through the bodies of their descendants, fear of the acquired death, the instinctive reaction to wish not to die occurs. Therefore, it proves that our ancestors were immortal. 그러고로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해와가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는 세계에서 살던 그 피가 우리 후손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고로 후천적으로 온 죽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이 안 죽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although the human body's secret of not dying is in the Bible, no one has unsealed and explained it correctly. So the people of this world continue to die. 그러고로 바로 성경 속에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해놨지만, 이것을 바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던 고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The Bible says that people die because of sin 성경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해

Even though they are dying like this, starting from the Victory Altar, its headquarters is in YeokGog, BuCheon-si, in Korea; over 100,000 members across the country are



Messiah Cho Hee-sung

enjoying the amazing joy of not dying. Also, older people get younger; for example, older people over 95 and over 90 restart menstruating, breasts get bigger again, grey hair turns black, and wrinkles straighten out. Such wonderous work is happening. 이와 같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바로 한국 땅 부천시 역곡에서는. 역곡이 본부요 승리제단 본부인데 거기로부터 전국적으로 10만여 성도들이 죽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늙은이가 젊어지고 또한 95세, 90세 넘은 노인들이 다시 경수를 하고 젖이 다시 커지고 다시 흰머리가 검어지고 주름살이 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If there is anyone who criticizes this, it is the person who does not know the Bible. The Bible predicts eternal life by saying, "The perishable does not perish, and the mortal does not die." 1 Corinthians 15:52 There is a saying in the Bible that God accomplishes everything even without the smallest letter and the minor stroke of pen missing. 이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논했고 씌울 것이 씌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점 일획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perishable does not perish, and the mortal does not die. It is a fact that these words of the Bible are being fulfilled in Korea today. That is why we cannot die even if we want to die. 그러고로 씌울 것이 씌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로 우리는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The Bible says that people die because of sin, and sin is the devil's servant. The devil servant is a cub of the devil, that is the devil. People die because it is the devil.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건 죄가 바로 마귀 종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귀 종이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가 마귀입니다.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Therefore, because the devil occupied humanity, people are living under the control of the devil. As for the evidence that the self-consciousness of 'I' is the devil, try to hurt anyone's pride; the temper comes out, the nervousness comes out; evil is coming from it. 그런 고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고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증거는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악이 나옵니다. 성질이 나옵니다. 신경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이 나오는 겁니다.

A tree that bears evil fruit is the evil tree. It is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spirit of 'I' is the spirit of the devil, the evil. Therefore, the conscience that is the Spirit of God is a good heart, a good heart is a good spirit, and a good spirit is the Spirit of God. 그 악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악한 나무입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악한 마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고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 양심이 바로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은 선한 영, 선한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This conscience, which is the spirit of God, is being imprisoned in the devil's prison. This good heart conscience being imprisoned in the devil's prison is the Spirit of God. 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이 마귀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옥에 갇혀 있는 이 선한 마음,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Most people think that God is at the top of the air and pray while looking up at the sky, but these are people who do not know the Bible. 그러고로 오늘날 하나님이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Ephesians 2:2 says a devil is at heaven at the top of the sky, and Ephesians 6:12.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is the spirit who works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are in the heavenly realms. Ephesians 6:12. 하늘 꼭대기 공중에는 마귀가 있다고 에베서 2장 2절에 써 있고 에베서 6장 12절 에도 써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중신이 악신이라고 에베서 6장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Also, Luke 10:18 says,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Then there is the devil in the air at the top of the sky. Then to whom are those who pray while looking at the top of the sky praying? 또한 누가복음 10장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꼭대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Therefore,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in man. Luke 17:21 says,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Also, the gospel says,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그러고로 하나님의 소제는 바로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속에 있나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Putting these two words together, does it mean that the spirit of God is at the top of the sky, or is it in humanity?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at there is God in the heart of humanity. Therefore, we should treat people as God; ignoring or hating people is hating God and opposing God. 이 두 말씀을 합해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늘 꼭대기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고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7면에 계속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49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6탄 >

3. 생명의 빛인 '오라Aura'

3-1. 빛의 실체를 몰라 '오라'라고 했다.

1.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소련의 심령과학자 '키를리안'이 친 구되는 의사카이킨'에게 부탁하여 '고주파촬영기로 사진을 찍어서 나온 빛을 '오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2.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사람의 몸에서만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나뭇잎에서도 빛이 나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무엇인지 모르니까 '오라'라고 발표했던 것이다.

3-2. 새로운 빛 중성자 광(光)의 정체

1.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이원영 박사가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세미나를 했을 때, "원소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중성자의 빛은 태양 빛보다 100억 광년이나 빠르다"고 말한바 있었던 것이다.
2. 아이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이 세상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다.
3. 그리고 '만약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물질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 아이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4. 그 중성자의 빛이 태양 빛보다 더 빠르다면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5.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했지,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
6. 그 빛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빛 자체가 생명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람이 논하고 있는 것이다.
7.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다.
8. 1광년은 1년 동안 태양 빛이 나가는 속도를 말하는 것이다.
9. 태양 빛보다 100억 광년이나 빠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말이다. 너무 빠르고로 셀 수가 없다.
10. 나뭇잎 속에서도 빛이 나온다는 것은 나무 속에 생명의 물질이 들어가서 그 생명의 물질로 말미암아 빛이 나오는 것임을 이사람이 시간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11. 최근의 과학계에서도 말하기를 중성자의 신비가 벗겨질 때 우주의 신비가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다.
12.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다. 중성자의 신비가 벗겨지는 때는 이미 이 우주가 빛의 세계로 화하여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49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 Humans are God. – Part6 >

3. The light of life, the aura. 3-1 People do not know the essence of light so they call it the aura.

- 1 Russian spirit scientist, Kilurian asked his friend, doctor Kaikin to take a picture of light emitting from people using a special camera and he called it the aura.
- 2 Because they do not know about it so people called the light aura.
- 3 He was curious about the light not only from humans but also from the trees, because they transmit light.

3-2 The identity of new light, light of neutron.

- 1 Doctor Lee Wonyeong, of Columbia University, came to Korea in 1986, and said "Neutron

- light from the atom flies 10 billion light- years faster than the light of the sun.
- 2 Einstein said "the speed of light is the fastest in the world".
- 3 And he added "If there is material faster than the light, it can move beyond time and space". Einstein thought that there was nothing faster than light.
- 4 If the light of neutron is faster than the light of the sun, then it is not the light of this world.
- 5 The scientist thinks that this is a phenomenon of nature; he never thinks the light itself is the light, spirit, and material of God.
- 6 This Man says that light itself is the spirit and life material of God.

- 7 The light of God is not the light of this world.
- 8 A light-year is the speed that the light of the sun travels in one year.
- 9 Saying that "the light of neutron is 10 billion light-years faster than the sun's" is so abstract and uncountable.
- 10 This Man said that light emits from a tree is because it has a life, due to this life, light is coming.
- 11 Lately scientists say that when the mystery of neutron is revealed, the mystery of the universe will also be revealed.
- 12 But when the mystery of the neutron is revealed, they will see that the universe had already become a world of light. by Hana